6월 항쟁 20년

4 항쟁의 도화선 이한열

"기억하는가, 불꽃같던 그 6월의 절규를"

임동확 〈시인·한신대 교수〉

기억하는가. 백양로에 서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꿈꾸던 아름다운 청년. 무심히 '잎새를 스쳐가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끝까지 5월 광주의 아들이고 자 했던 한 순결한 대학생을. 스무 해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고자 5월의 아우가 친구의 팔에 안긴 채 희고 긴 목을 힘없이 꺾었다. 자신을 '살려내라'는 애절한 목소리들을 뒤로 한 채 누구도 원하지 않았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다.

돌이켜 보라. 끝내 일어서지 못한 그의 영구차가 서울 시청 앞 광장을 지날 때 얼마나 많은 분노가, 얼마나 깊은 슬픔이 성난 파도처럼 일어났던가를. 드디어 고향 광주의 망월동으로 향했을 때, 호남 고속도로마다 피어난 모든 6월의 꽃들이 일시에 조화(弔花)로 변해갔던 것을. 그래, 우린 아직도 똑똑히 기억한다. 광주항쟁 계승과 군부독재 청산을 외치던 천만인의 절규와 함성을. 쏟아지는 곤봉과 페퍼포그 속에서 '호헌철폐' '민주헌법 쟁취'를 외치며 '모두 불화살이 되어' '돌아오지 말자'고 절규하던 그날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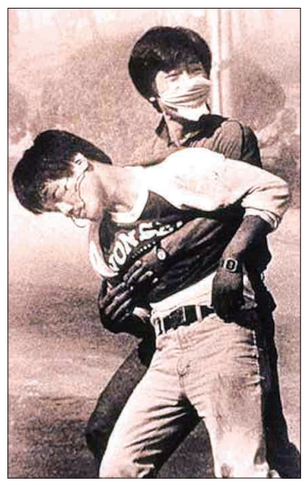
그러나 살아남은 우리들은 교활했고 또 어리석었다. '6·29' 선언 뒤에 숨어있는 음흉하고 가혹한 '채찍'을 애써 간과했다. 너나없이 더러운 야합과 변절, 구차스런 변명과 변신의 대열에 합류해갔다.

어디 그뿐이랴. 여전히 완성해가야 할 민주주의의 갈 길은 멀고 험한데, 너무도 '일찍' 그리고 '자주' 자축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각목과 돌멩이 대신 골프채를 휘두르며 정당한 분노와 증오를 일깨우던 그날 거리의 경적 소리와 전국 교회와 사찰의 타종 소리를 망각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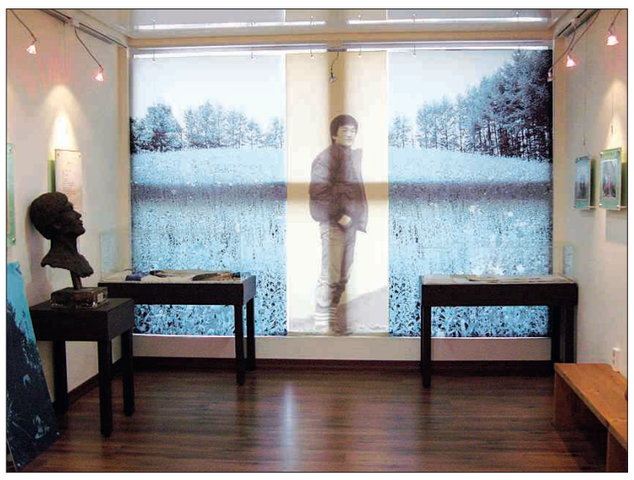
그러나 한때나마 모두들 윤동주이고자 했고, 이한열이고자 했던 이들이여.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란 정권의 심장을 뚫는 불화살이고자 했던 그날의 시민들이여. 이 땅에서 눈부신 4월의 순결이, 5월의 용기가, 6월의 자부심이 마치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스무 해, 서른 해 마구 더 흘러가기 전에 우린 어떻게 살아야 떳떳한 삶인지 되물어야한다. 진달래처럼 붉은 4월 혁명, 짐승같은 악몽의 5월 광주, 불꽃 같은 절규의 6월이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역사적 계절의 삼각 벨트로 도약할 때까지 더운 양심과 깊은 연민의 십자가를 제 것으로 짊어져야 마땅하다.

광주 5월의 연장이자 완성이었던 6월의 청년들이여. 그러니 설익은 개혁의 살덩이와 어설픈 민주주의의 뼈다귀를 물고 서로 개처럼 으르렁거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최루탄 자욱한 그날의 거리에서 다짐하던 너와 나의 맹서는 과연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오늘의 조국은 또 다른 스무 해를 이어갈 맑고 날카로운 청년적 지성의 예지력과 예언자적 용기의 목소리를 부르고 있다. 지금 여기의 우린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만으로 행복한 희망과 사랑의 영구혁명 속에 서 있다.



6월 하늘 아래 이한열을 기리며 떳떳한 삶이 무엇인지 되묻는다



6·10 항쟁의 상징인 '광주의 아들' 이한열 열사 기념관. 지난 2005년 6월9일 국민 모금으로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에 문을 연 이 기념관(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30㎡)은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긴 채 쓸쓸이 항쟁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곳엔 87년 당시 입고 있던 파란 티셔츠와 밑창이 떨어져 나간 운동화 등 유품 1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1966년 화순에서 태어나 광주 진흥고를 거쳐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열사는 87년 6월9일 교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으며, 7월5일 숨을 거뒀다. /서울=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씨

"20년간 한시도 편히 쉰 적 없어"

"벌써 20년이라고들 하지만 내겐 너무나 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열이를 그렇게 보내고 한 시도 편히 쉰 적이 없는데…. 그렇지만, 더 이상 내 아들과 같은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지난 5일 서울시 종로구 신창동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67)씨는 "6·10 항쟁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아들의 모습은 더 선명해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배씨는 아들을 잃은 이후 주로 서울에서 머물며 각종 민주화 시위에 참석하거나 강연 등을 하며 먼저 간 아들이 못다 이룬 뜻을 이루는데 몸 바쳐 왔다.

배씨는 "상대적으로 5·18에 (한열이가) 묻혀 소외감도 느꼈고, 광주에서는 한열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아서 광주 지원동 집은 거의 비어 두고 살았다"면서도 "아들 생각에 허전하고 마음 약해질 때면 망월동에 다녀간다"고 말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둡고 치열했던 '그때'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속상하지는 않습니다. 그 험한 시절에도 자식 같은 애들한테 열심히 싸우라는 말은 못하고 '조심해라, 조심해라'는 말 밖에 못했어요. 나는 엄마잖아요."

/서울=김여울기자 wool@

몸 속 금속물질의 정체는?

출근길 피습 40대, 수술 못해 수사도 난항

출근길 의식불명에 빠진 40대 남자의 몸안에서 공기총 탄환과 비슷한 금속물질이 발견됐으나 일반적인 공기총 사고와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관공인 김모(40·여수시 선원동)씨가 여수시 선원동 L안경원 앞길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은 지난달 31일 오전 7시5분께. 전남대병원 CT 촬영 결과 폭 4.8㎜·길이 1.2~1.4㎝의 금속물질이 1번 목등뼈 부위(頸椎部)를 관통한 뒤 목안에 박혀있었다. 목덜미에는 금속물질이 관통하면서 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다.

이 금속물질은 5.5구경 공기총 탄환(폭 5.5㎜·길이 9㎜)과 비슷했다. 하지만 공기총 탄환(납탄)은 목표물에 박히는 순간 충격을 받아 찢어지거나 찌그러지는데 반해 이 물질은 뼈를 관통했는데도 전혀 변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크기가 달라 권총 탄환(38구경 폭 1.1㎝, 길이 3.8㎝) 가능성은 배제됐다. 민감한 부위라 사망 우려가 커 수술도 못하고 있다.

고민에 빠진 경찰은 최근 사고 순간을 그대로 재연했다. 이물질이 몸에 박힌 각도(30도)로 미루어 현장과 30m 떨어진 지점에서 5.5구경 공기총 2발을 허공에 쐈다. 목격자 김모(여·45)씨는 그러나 "소리가 서로 다르다"고 증언했다.

여수경찰 김성남 강력 5팀장은 "정확한 성분을 알 수도 없고 빼낼 수도 없어 CT 필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해남군수 봐주기 수사" 진정서 익명 투서자 '우표 DNA' 추적

군청 직원 10명 타액 추출

경찰이 자신들의 수사를 비난한 진정인을 찾기 위해 DNA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된 박희현 해남군수에 대한 수사가 '봐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익명의 진정서가 전남청장 앞으로 접수돼 진정서를 보낸 사람을 추적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봉투에 우표를 붙이기 전 침을 바른다는 점에 주목, 우표의 DNA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했다.

또 박 군수 취임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 등 군청 직원 10여명의 침도 추출, 국과수로 보냈다. 조사 결과는 이달 말께 나올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쾌하고도 충분히 조사했고 단체장을 구속까지 했는데도 이런 근거도 없는 내용의 무고성 투서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반드시 찾아내 무고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추 누가 훔쳤을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10개 점포 잇따라 털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고추 도난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벽 1시께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주)중앙청과 채소부 최모(여·53·광주시 서구 치평동)씨의 고추 48㎏이 사라지는 등 지난 4월10일부터 최근까지 10개 점포가 차례로 털렸다.

절도범은 중국산 고추와 다른 농산물은 그대로 놔둔 채 국산 고추만 훔쳐 갔으며, 피해 규모는 965근(579㎏) 8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점포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 165㎝가량 키의 절도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참 〈7230〉 김종두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본사:(062)514-3002 ▶공장:(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62)525-9002 ▶전주점:(063)271-5051

주병진씨 1억9천만원 배상 받는다

쌍나팔

○…대법원 2부는 개그맨 주병진〈사진〉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대생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강씨는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고, 주간지·월간지 등 3개 언론사도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강씨가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행위로 인해 주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긴급성을 그다지 요하지 않는 주간지·월간지들은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

○…지난 2000년 11월 서울 H호텔 주차장에서 강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씨는 강씨 등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연합뉴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주)조이트래블
www.joy-travel.net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57번지 2F
대표전화 (062) 234-3222
"대한민국 1등여행사는 하나투어입니다.
하지만, 호남에서는 조이트래블이 1등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업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代表理事 崔錦桓

일 본

추천상품1 (광주 출도착)
오감만족! 국내 최저가 일본 큐슈 온천 4일
279,000
▶출발일 : 6월 29일 / 7월 1, 3, 8일
▶숙박 : 야마나미 통나무 콘도
▶전 일정 노팁! 노옵션! / 광주 출 · 도착 기준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추천상품2 (광주 출도착)
통나무 콘도와 일본 전통 온천호텔과의 만남 4일
299,000
▶출발일 : 7월 11일
▶숙박 : 빌라형 통나무 콘도+벳부전통온천호텔
▶노옵션! / 광주 출 · 도착 기준 / 가이드 팁 별도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추천상품3 (광주 출도착)
일본 전통 온천호텔을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 4일
399,000
▶출발일 : 7월 13, 18, 19일
▶숙박 : 온천호텔 또는 특급호텔급
▶전 일정 노팁! 노옵션! / 광주 출 · 도착 기준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일본 큐슈 온천 3박4일 일정표

279,000
▶출발일 : 6월 29일 / 7월 1, 3, 8일
▶숙박 : 야마나미 통나무 콘도

날짜	장소	교통	시간	일정	식사
제1일	광주	전용버스	12:30	광주역 앞 집결(12:30) / 출발 후 부산 이동	휴게소
	부산		18:00	부산 국제 여객선 터미널 도착 후 출국 수속	개별식
		카멜리아	19:00	부산 출발 / 후쿠오카 향발	
				호텔 : 카멜리아 선내 숙박 (다인실)	선내식
제2일	후쿠오카	전용버스	08:00	선내 조식 및 하선 후 태재부로 이동	선내식
				학문의 신을 모신 **태재부천만궁** 관람	
	구마모토			구마모토로 이동 후 중식	일식뷔페
			전 일	일본의 3대성 중 하나인 **구마모토성** 관람	
	아소			**쿠사센리** / 세계 최대의 활화산 **아소산** 관광	
	구중산			석식 및 콘도 투숙 후 휴식	콘도식
				호텔 : 빌라형 콘도 (야마나미)	
제3일	구중산	전용버스	08:00	기상 및 조식 후 **히가시시야 폭포**(85M) 관람	콘도식
	벳부			벳부로 이동 후 명반 채취지 **유노하나** 관광	
				가마도지옥 관광 후 중식	일식뷔페
			전 일	야생 원숭이들의 천국 **다카사키 원숭이 공원** 견학	
				석식 및 콘도 투숙 후 휴식	콘도식
	구중산			호텔 : 빌라형 콘도 (야마나미)	
제4일	후쿠오카	전용버스	06:00	기상 및 조식 후 후쿠오카로 이동	콘도식
			08:30	후쿠오카 **오호리 공원 / 일본 정원** 관람	
		카멜리아	11:30	하카타 항 도착 후 출국 수속	
			12:30	후쿠오카 출발 / 부산 향발	선내식
	부산	전용버스	18:00	부산 도착 후 광주로 이동	휴게소
	광주		22:30	광주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개별식

▣ 전일정 노팁! 노옵션! ▣ 여행자 보험 1억원 가입
▣ 광주 출도착 기준 ▣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광주에서 출발하는
장사(장가계) 전세기 직항
2007년 6월 16일 ~ 11월 28일
"人生不到張家界 百歲豈能稱老翁?"
"사람이 태어나서 장가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코드	상품명	여행기간	적용기간	출발일	상품가
KCZP-1	[장사/장가계] - 보봉호 유람선, 천자산 케이블카	3박4일	6/16~7/13	수	549,000 529,000
KCZP-2	[장사/장가계/황석채] - 황석채 왕복 케이블카, 황룡동	4박5일	6/16~7/13	토	599,000 579,000
KCZP-3	[장사/장가계/천문산] - 천문산 왕복 케이블카, 황룡동	4박5일	6/16~7/13	토	649,000 629,000
KCZP-4	[장사 GOLF] (54H) - 청죽호C.C, 자산C.C, 용호C.C	3박4일	6/16~7/13	수	699,000 679,000
KCZP-5	[장사 GOLF] (72H) - 청죽호C.C, 자산C.C, 용호C.C, 청죽호C.C	4박5일	6/16~7/13	토	799,000 779,000

* 공통포함사항 : 공항세, 출국세, 전쟁보험료, 현지공항세, 유류세, 1억원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관광) : 단체비자비(18,000), 기사 가이드 봉사료 (1박당 10,000원)
* 불포함사항 (골프) : 단체비자비(18,000), 기사 가이드 봉사료 (1박당 10,000원), 클럽하우스 중식, 캐디팁, 클럽 렌탈비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성수기(7월 14일~8월 15일, 9월 22일, 9월 26일, 10월 7일)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중국1 -전세기상품

패키지1 (광주출발)
고구려 문화 유적지 탐방 CZ 4일
569,000 ▶(~7/13) 매주 금요일 출발

패키지2 (광주출발)
백두산/심양 CZ 4일
699,000 ▶(~7/13) 매주 금요일 출발

패키지3 (광주출발)
북경/백두산/심양 CZ 5일
839,000 ▶(~7/13) 매주 월요일 출발

※ 공통 불포함사항
- 비자발급비(18,000), 가이드 및 기사 팁 (1박당 10,000) 별도

중국2 -대한항공상품

패키지1 (광주출발)
상해/소주/항주 KE 4일
299,000 ▶6월 13, 20일 / 7월 4, 11일

패키지2 (광주출발)
상해/소주/항주/무석 KE 5일
319,000 ▶6월 16일 / 7월 7, 14일

패키지3 (광주출발)
상해/장가계/원가계 KE 4일
719,000 ▶6월 13, 20, 27일 / 7월 4, 11일

패키지4 (광주출발)
상해/항주/장가계(원가계) KE 5일
789,000 ▶6월 16, 23일 / 7월 7일

패키지5 (광주출발)
상해/항주/황산 KE 4일
649,000 ▶6월 13, 20, 27일 / 7월 4, 11일

패키지6 (광주출발)
상해/황산/항주/주가각 KE 5일
625,000 ▶6월 16, 23일 / 7월 7일

※ 공통 불포함사항(패키지1, 2는 별도 규정)
- 비자발급비(18,000), 가이드 및 기사 팁 (1박당 10,000) 별도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 5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 공통조건 :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 국내상품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경비 없음 (단, 개인적인 팁,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출발인원 15명 이상
◆ 상기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